

가정환경, 학교환경,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 제주도 청소년을 중심으로 -

이 차 선*

目 次

- I. 서 론
- III. 연구방법과 절차
- II. 이론적 고찰
- IV. 결과와 해석
- V. 논의 및 결론

I. 서 론

1. 문제제기

청소년기의 가장 큰 과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 즉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장래, 능력, 존재이유 등에 관해 끝없는 질문과 회의를 하며 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그러한 변화로 인하여 지금까지 유지시켜 온 그들의 자아 일관성에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자아정체감에 대한 탐색이 특별히 청소년기에 민감하게 나타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자아정체감의 확립과정에서 건강한 자아의식을 발달시키는데 방황과 혼돈을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아정체감이 긍정적으로 확립되면 주체성을 갖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자아정체감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또는 대결을 통하여 생성된다. 다시 말하면 미래적인 욕구와 현실적 조건이 끊임없이 대립되어 나타날 때 자아정체감의 추구는 보

* 교직과 강사

다 촉진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Erikson(1980)의 주장대로 자아정체감은 사회적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개선되어 가는 자신에 대한 현실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아정체감의 발달과 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정환경과 학교환경, 그리고 심리 성격적 특성을 지닌 자아존중감은 자아정체감이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발휘되고 실현되는데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판단된다.

자아정체감은 유아기 이후 가정환경을 통하여 그 토대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과 부모와의 동일시로부터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과 함께 구조적 통합을 이루며 보다 넓게 확대 분화 되어간다. 특히 부모와 청소년간의 관계와 가족의 영향력은 자아정체감의 형성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 의해 입증된 바 있다(Grotevant & Cooper, 1985; Adams, Dyk & Bennion, 1987).

학교환경 또한 사회 속에서 자아정체감을 형성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특히 교사 - 학생간에 조성되는 심리적 학교환경이 그러하다. 청소년들은 교사와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대인관계를 확장하고 자신의 역할과 정체감을 모색한다. 뿐만아니라 학습활동과 학습과정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으로서의 자질과 성격을 발달시켜 나간다.

자아정체감은 이처럼 가정환경과 학교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기도 하지만, 청소년기에 보다 민감하게 작용하는 자긍심과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자아존중감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자기 인식과 자기 실현의 차원에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강한 영향력을 갖는 심리 성격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자아정체감이 자기 확신감과 심리적 자신감 및 자아존중감에 의해 긍정적으로 형성된다는 Erikson(1975)의 이론에 의해서도 잘 뒷받침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주로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관련을 맺고 있는 개별 변인과 자아정체감간의 관계연구이다. 둘째는 자아정체감의 측정 방법과 도구개발에 대한 연구이다. 셋째는 개별 변인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발달 수준을 비교한 연구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청소년기의 특정한 연령발달 단계에 국한시켜 자아정체감과 단일 변인과의 상관관계나 차이를 연구하였거나, 또는 단일 변인을 자아정체감 형성의 영향 변인으로 다룬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자아정체감과 관련이 있는 개별 변인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가치가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이런 개별 변인에 대한

연구가 갖는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다양한 변인을 설정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자아정체감과 관련된성을 찾는 연구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판단되는 변인들 중 가정환경, 학교환경, 자아존중감 변인을 설정하여 보다 넓은 각도에서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해 보려고 하였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육지와 유리되어 있는 제주도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을 검토하고 육지의 청소년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제주도 청소년들의 특성을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리하여 어떤 변인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보다 많은 영향을 주는가를 밝혀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인성지도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가정환경, 학교환경, 자아존중감 변인들을 고찰하고, 이들 변인들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며, 어떤 변인이 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인성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을 참고로 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환경, 학교환경, 자아존중감 변인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변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청소년의 연령단계별 자아정체감의 발달경향을 분석하고, 그 하위변인들의 연령단계별 변화를 밝히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정체감이란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고, 이론적 발전과 실제적응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은 Erikson(1959)이다. Freud가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의 표출과 발달단계 별로 그 에너지의 욕구충족에 따른 성격발달을 논하고 있는 반면, Erikson은 문화적 맥락 속에서의 자아발달을 강조하면서 프로이트의 이론을 연장시켜 설명하고 있다. 즉 변화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환경과 접촉하는 과정에 아동의 자아양식이 경험하는 위기와 극복과정이 성격발달의 주 요인이라고 하였다.

Erikson(1975)은, 자아정체감의 개념 규정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으로 분리하여 설명하였다. 자아정체감의 객관적 측면은 심리사회적 정체감으로, 개인과 관련된 집단과의 일체감 및 귀속감을 뜻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심리 사회적 정체감은 개인의 심리 내적인 총체와 그의 집단에서의 역할통합의 상보성에 의존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주관적 측면은 개별적 정체감이라고 명명하고, 개인적 정체감과 자아정체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개인적 정체감이 시공을 초월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동일성과 연속성을 지각하는 힘이라면, 자아정체감은 개인적 정체감을 포괄하는 힘이다. 즉 개인의 자아를 통합해 가는 방식(원초아, 자아, 초자아의 세 체계를 통합하는 방식)이나 자신의 고유한 개성유형을 동일성과 연속성으로 지각하게 하는 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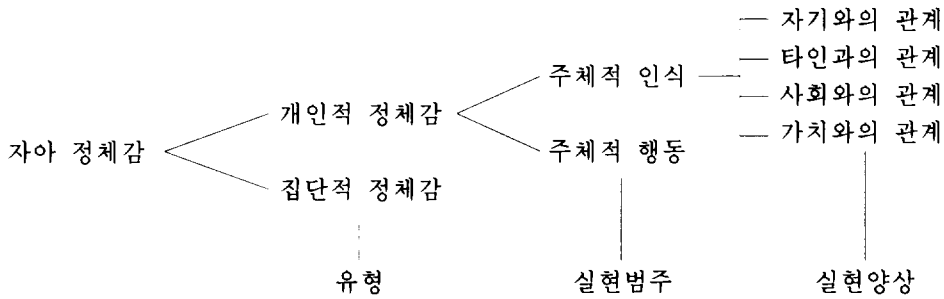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내려진 개념정의를 종합하여 나름대로 자아정체감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그 실현양상과 유형을 [그림Ⅱ-1]에 제시한다.

‘자아정체감’이란 한 개인으로서의 자아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들을 자기의 고유한 방식으로 조직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동일성, 연속성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인식하며, 행동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아정체감은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지만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첫째, 자기인식과 자기실현 차원에서의 자아정체감이다. 둘째, 인간 상호관계의 차원에서의 자아정체감이다. 셋째, 사회적 역할 차원에서의 자아정체감이다. 넷째, 가치인식과 가치추구 차원에서의 자아정체감이다.

이상과 같은 자아정체감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개인적 정체감이요, 다른 하나는 집단적 정체감으로 이는 구성원간의 결속력을 바탕으로 특정 민족, 특정 국가, 특정 지역에서의 귀속감, 일체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상의 자아정체감의 정의에 따른 유형과 실현범주 및 실현양상을 그림으로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1] 자아정체감의 유형과 실현 양상(이차선, 1999)

이와 같은 자아정체감은 청소년기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유아기 때부터 시작되어 다양한 경험의 축적과 동일시 및 그 구조적 통합을 통해 일생동안 발달된다(Douvan & Adelson, 1969; Erikson, 1980; Jacobson, 1964).

Erikson(1959)은 정체감 형성과정은 점진적인 형태의 결합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 결합형태는 아동기에 걸쳐 계속되는 자아통합과 재통합에 의해 서서히 형성되어 가는 방식을 취한다. 즉 생득적인 경향과 특질적인 리비도적 욕구들, 유리한 능력들, 의미 있는 동일시들, 효과적인 방어, 성공적인 승화 및 일관된 역할 등과 같은 다양한 구인들이 그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통합됨으로써 자아정체감은 형성되어 나간다고 보았다. 그러나 Erikson(1980)의 주장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 생리적 성숙과 그에 따른 사회적 역할을 확고하게 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자아정체감의 모색과 확립은 보다 의식적인 수준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청소년들은 새로운 의미의 연속성과 동일성을 찾기 위하여 전 단계에서의 위기들과 다시 투쟁하면서 새로운 정체감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불변성과 연속성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하였다. 또한 개인의 발달과정에서 경험하고 획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성취들이 내적인 만족감과 긍정적인 자부심을 갖게 하면서 자아정체감의 발달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자아정체감 형성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자기존재에 대한 의문과 생물학적·성적 성숙에 의한 본능과 자아, 초자아간의 갈등, 그리고 사회적 역할, 능력 등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체감 위기, 또는 정체감 확산, 부정적 정체감을 경험하면서 역할혼돈에 빠지기도 한다.

이러한 Erikson의 청소년기 정체감 위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할 때 극복될 수 있다고 보아진다(송명자, 1995). 첫째는 자신에 대한 인식의 연속성

과 동일성을 확립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아의 여러 국면을 일관성 있는 하나의 자아체계로 통합하는 것이며, 셋째는 자신의 독특성 또는 특수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2. 가정환경과 자아정체감의 관련 연구

가정은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속에 한 개인에게 출생으로부터 성숙에 이르는 청소년기까지 발달 전반에 영향을 주는 곳으로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확립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연구추세를 보면, 정체감형성의 발달과정과 관련된 가정환경 변인으로 크게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는 가족의 구조 및 사회경제적 지위환경이 주로 다루어지고, 심리적 환경으로는 부모와 자녀간의 과정환경을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심리적인 과정환경요인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아정체감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김유자, 1996; 신태수, 1986; 유명환, 1989)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자아정체감과 유의한 상관이 없거나 하위요인에 따라서는 아주 낮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Turner(1990) 또한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가정의 구조와 물리적 환경을 밝혔는데, 그 중에 부의 교육과 가정의 월수입은 자아정체감 지위를 말해 주는 유의미한 예언자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가정의 심리적 환경은 정체감 형성의 발달과정에서 아주 많은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 중에서 부모의 자녀 양육방법, 자녀에 대한 태도와 부모 - 자녀간의 인간관계 등은 특히 많이 연구되고 있는 변인이다.

김형태(1989)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학교생활적응 변인이 모두 밀접하게 상관이 있음을 밝혔으며, 권순명(1993)과 송설희(1993)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수용적 태도와 자율적 양육태도는 거부적인 양육태도에 비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Richardson, Galambos, Schulenberg 그리고 Petersen(1984)은 가정환경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의 연구에서, 부모의 적절한 통제와 자율, 허용, 애정 등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상관이 있다고 밝혔으며, 가족의 상호작용변인과 정체감 수준은 높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atson과 Protinsky(1988)는 가족의 응결력과 적응력에 있어서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가정의 청소년은 보다 높은 자아정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함께 연구할 것이다.

3. 학교환경과 자아정체감의 관련 연구

오늘날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곳으로 밝혀지고 있다. 왜냐하면 발달 단계 중 성장발달이 가장 활발하고 예민하게 이루어지는 아동기와 청소년기 동안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의 발전, 변화와 함께 형식적 교육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청소년기의 대부분도 학교에서 보내게 됨으로써 학교는 학생들의 인격형성 및 성장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환경의 측정을 다룬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학급수준에서 이루어져 오고 있다. 학급은 학교환경에 포함되는 하위개념이지만 학교의 가장 전형적인 구성단위로, 학교를 대표하는 곳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학급환경의 진단에 있어서 학급분위기, 즉 학급성원간의 대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조성되는 풍토와 분위기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교우관계, 태도, 교사 - 학생관계를 주로 포함한다(정원식, 1995).

Rutter(1985)는 교사에 대한 태도와 자아정체감과 관계 연구에서, 교사와의 상호작용과 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자아정체감과 밀접한 상관을 맺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병재와 장승옥(1984)도 청소년에게 있어서 교우관계는 가정환경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교우집단을 통하여 청소년은 유희성의 충족과 정보를 확인하며, 자아정체성의 확립과 사회화를 촉진하게 된다고 보았다.

자아정체감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연구(김형태, 1989; 이경숙, 1984; 정성숙, 1994)에서 나타난 것은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 점수가 높은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학교환경에서 학교의 심리적 환경변인만을 자아정체감과 관련하여 연구하기로 하였다.

4.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의 관련 연구

자아존중감은 특정한 대상, 즉 자아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태도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자기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Rosenberg, 1965, 1979).

Branden(1992)은 자아존중감은 자기자신이 삶의 도전에 대처해 나가는 유능성

이 있고, 가치로운 존재로서 자기의 삶을 책임지고 다스려 나갈 수 있는 행복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힘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자기 효능감(개인적 유능감)과 자기 존경감(개인적 가치감)의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두 가지는 건전한 자아존중감의 양대 축(pillar)으로서 한 쪽이라도 결핍되면 자아존중감은 손상을 입게 된다고 하였다.

Gurney(1988)는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의 자아개념을 지각하고 평가하는 가치감의 상대적인 정도이고, 의미 있는 타인이나 개인의 이상적인 자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Rosenberg(1979)는, 개인은 자아가 발달하면서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존중감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고, 이 욕구는 자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발달한다고 하였다. 그는 자아존중감 형성의 원리를 네 가지, 즉 반영된 평가, 사회적 비교, 자아귀인, 심리적 중심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아존중감 욕구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강력한 욕구로 나타나는 인정과 지지, 소속감에 대한 욕구와 더불어 특히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에 영향을 주어 개인의 성장과 발달 및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자아실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의 혼미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존재규명이나 역할실험과 직업선택 등의 과제에서 겪는 위기를 극복하고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간의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Marcia가 개발한(1966) 자아정체감 지위분류 - 자아정체감 혼미수준, 조기완료수준, 유예수준, 성취수준 - 검사척도를 사용하여 자아정체감의 성취지위수준을 검사하였다.

Marcia는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긴장조건 하에서의 자기존중감의 안정성을 자아정체감 수준에 비추어 관찰 연구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자아정체감 성취수준과 유예수준을 보이는 학생들은 부정적인 정보를 받았을 때 자아존중감이 덜 동요됨을 나타내었고, 자아정체감 조기완료수준에 있는 학생들은 자아존중감이 쉽게 동요되었으며, 성취수준에 있는 학생보다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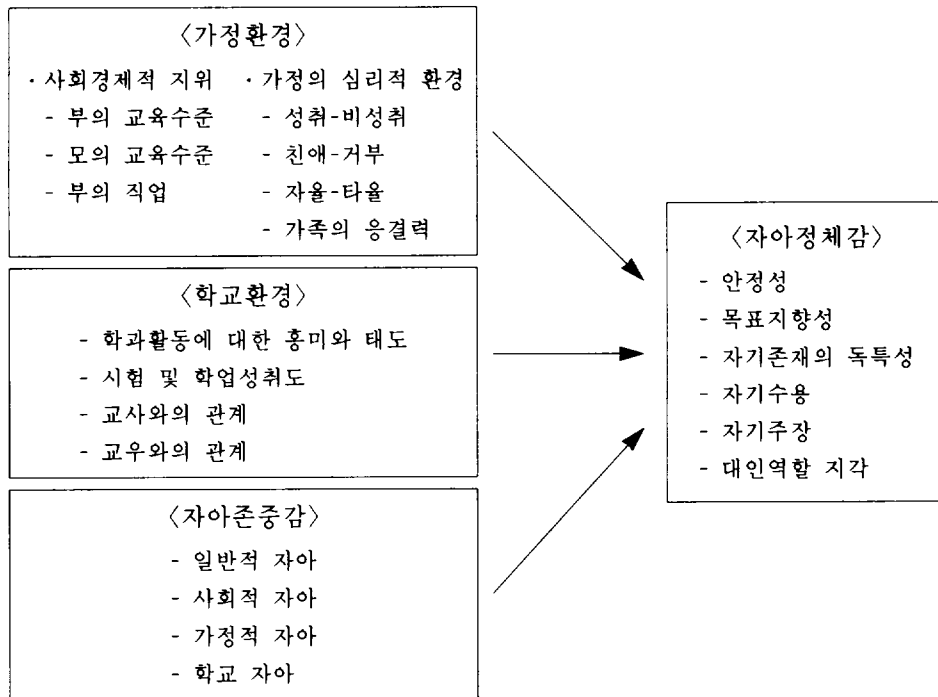
Bruer와 Snyder(1972)와 Marcia(1980)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은 자아정체감 성취지위에 있는 학생들과 유예지위에 있는 학생이 높고, 반면 조기완료와 혼미지위에 있는 학생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으며, 특히 조기완료자들은 상황변화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기존중감이 낮게 나왔다고 보고되었다.

Turner(1990)의 연구에서는, 높은 자아존중감은 높은 정체감지위와 정적인 상관을 맺고 있으며, 반면 낮은 자아존중감은 낮은 정체감지위와 정적인 상관을 맺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Abraham(1983)과 Rosenfeld(1972)의 연구에서도 Turner의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를 밝혔다.

Ⅲ. 연구 방법과 절차

1. 연구 모형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모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그림Ⅲ-1] 참조).



[그림Ⅲ-1]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모형

이 연구모형은 자아정체감의 형성변인을 분석하기 위해 가정환경과 학교환경,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음을 보여준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자아정체감과 가정환경, 학교환경,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밝히고, 각 변인들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연구문제 1. 가정환경, 학교환경, 자아존중감은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며, 어느 변인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한다.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연령단계별 자아정체감의 발달경향을 분석한다.

3. 연구대상과 절차

본 연구는 제주시에 재학하고 있는 800 여 명의 남녀 학생들을 연령단계별로 만 12세부터 24세까지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검사의 실시는 1997년 10월 5일부터 10월 29일에 걸쳐 중·고등학교에서는 남녀 2개 학교를 각각 선정하여 한 학교에서 3개 학급을, 그리고 제주대학교에서 남녀 1, 3학년을 각각 무선으로 표집하였다. 여기서 대학생을 1학년과 3학년으로 구분하여 본 것은 대학시절에 정체감이 가장 발달하고, 1학년보다 4학년에서 보다 강한 개인적 정체감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Waterman, 1985)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 4학년은 수업과 취업준비 등의 분주함으로 인하여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가 어려워 부득이 대학교 3학년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전국 대학교 중 약 50여 개 대학의 각 학생생활연구소에서 펴낸 [학생생활 연구지]의 “학생생활 실태조사와 대학생활에 대한 의식조사” 연구물들을 검토해 본 결과, 대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신입생들과 대학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과는 여러 측면 - 성격, 태도, 자아개념, 적응, 의식 등등 - 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집에 응한 대상자는 총 752명이었으나, 회수된 검사지 중 총 문항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거나, 복학 및 기타 이유로 연령이 초과한 대학교 1학년과 3학년 학생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 결과 총 648명의 설문지를 유효한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각 연령단계별 표집 인원수는 다음과 같으며, 괄호 속의 숫자는 표집된 학생들의 평균연령을 나타낸다.

〈표Ⅲ-1〉 연구 대상

	중 2학년	고 2학년	대 1학년	대 3학년	계
남	102명(13세)	109명(16세)	51명(20세)	55명(24세)	317명
여	108명(13세)	110명(15세)	58명(18세)	55명(20세)	331명
계	210명	219명	109명	110명	648명

4. 측정 도구

1) 가정환경 검사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묻는 항목들은 가정환경 검사와는 따로 분리하여 실시하였다. 응답한 항목 중에 '부의 교육수준' 과 '모의 교육수준' 및 '부의 직업' 만을 사회경제적 지위지표로 사용하였다.

가정의 심리 과정적 측면을 보는 가정환경 검사도구로는 정원식의 〈가정환경 진단검사(1970)〉를 바탕으로 제작한 김형태(1989)의 〈가정의 심리적 환경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김형태가 개발한 가정환경 검사의 신뢰도 계수는 반분신뢰도가 .912였고, 재검사 신뢰도는 .765였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서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이 섞여있으며, 총점(160)이 높을수록 가정환경이 좋은 것으로, 낮을수록(40)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검사의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90으로 매우 높게 나왔다.

2) 학교환경 검사

본 검사지는 김형태(1989)의 〈학교생활 적응 척도〉 및 〈교우관계 척도〉와 Perry (1987)의 〈Friendship Interview〉척도 중에서 전문교수의 조언을 받아 30문항을 골라 제작하였다. 김형태가 개발한 척도의 반분신뢰도와 재검사 신뢰도는 각각 .755, .738로 나타나 있다. 점수는 가정환경검사와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총점(120)이 높을 수록 학교환경이 좋은 것으로, 낮을 수록(30) 학교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검사의 신뢰도 산출 결과 Cronbach α 계수는 .87로 높게 나왔다.

3) 자아존중감 검사

자아존중감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Gurney(1988)가 개발한 〈개정된 자아존중감 검사(Self-Esteem Inventory-Revised)〉를 연구자가 번안하였다. Gurney가 개발한 이 검사척도는 전체 3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6으로 제시되었으나 전문가와의 검토를 거쳐 32문항으로 제작하여 실시하였다.

검사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 [아니다]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는 1점으로 채점하였고, [아니다]는 0점으로 채점하였으며, 부정문항들은 역산하였다. 이 검사의 신뢰도 산출 결과 Cronbach α 계수는 .89로 높게 나왔다.

4) 자아정체감 검사

본 연구에서는 권순명(1993)이 Dignan(1965)과 서봉연(1975), 김형태(1989)의 세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만든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전체 60문항 중 반복되는 내용이라고 여겨지는 2문항을 빼고, 표현이 어색하거나 문장구조가 바르지 못한 항목을 바로잡아 58문항의 척도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권순명이 새로 구성한 검사도구의 Cronbach α 는 .76, 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86이었다.

응답 방법은 역시 4점 리커트 척도로서 각 문항은 긍정문과 부정문의 혼합으로, 부정문항인 경우는 역산하였다. 그리하여 총점(232)이 높을 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낮을 수록(58) 정체감이 낮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검사의 신뢰도 산출결과 Cronbach α 계수는 .85로 높게 나왔다.

5. 자료분석

- 1)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2) 연령단계별 자아정체감의 발달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고, 사후검증으로는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 3) 가정환경, 학교환경,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구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위한 모든 통계처리는 Spss/pc 프로그램에 의해 처리되었다.

6.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가정환경, 학교환경, 자아존중감만을 자아정체감의 형성변인으로 설정하여 그 영향력과 상관관계를 밝히는데 주력했기 때문에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 형성과정을 폭 넓게 설명해 주는 데는 미흡하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자아정체감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연구가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제주도의 제주시내에 있는 일반 중, 고등학교 및 대학에 다니는 학생만을 선정하여 표집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제주도 전체 청소년들에게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보다 광범위하게 제주 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표집과 실업계와 공업계, 농업계의 학생들과 미취학 근로청소년까지 포함시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를 위해서 사용한 질문지들은 신뢰도는 높게 나왔으나, 표준화된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연구 기회를 통하여 검증되고 보완될 필요가 있다.

IV. 결과와 해석

연구문제의 구체적인 검증에 들어가기 전에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기 위하여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의 심리적 환경, 학교환경,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그 결과를 <표IV-1>에 제시하였다.

<표IV-1>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의 심리적 환경, 학교환경,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의 상관관계

	사회경제적 지 위	가 정 의 심리적환경	학교환경	자아존중감
가정의 심리적환경	.03			
학 교 환 경	.05	.50**		
자 아 존 중 감	.04	.59**	.72**	
자 아 정 체 감	.09 *	.52**	.64**	.76**

* p<.05 ** p<.01

<표IV-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아정체감과 가장 밀접한 상관을 보인 변인은 자아존중감($r=.76$)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자아정체감은 학교환경과 $r=.64$,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r=.52$ 로 유의 있는 상관이 나타났다. 그러나 자아정체감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는 .05 유의수준에서 상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는 의미가 없는 상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도출된 것은 본 연구

에서 사용된 표본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큰 표본이 표준오차를 작게 하고, 그 결과 상관이 0이라는 영가설을 기각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아정체감과 실제에서는 상관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연구문제 1의 검증

첫째, 가정환경, 학교환경, 자아존중감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아래의 <표Ⅳ-2>에 제시하였다.

<표Ⅳ-2>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의 심리적 환경, 학교환경, 자아존중감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변인	회귀계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R ²
사회경제적 지위	.23	.10	.04	
가정의 심리적환경	.16	.03	.15**	
학교환경	.18	.05	.14**	
자아존중감	.15	.06	.59**	.61

** p<.01

위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다회귀분석 결과 가정의 심리적 환경, 학교환경, 자아존중감은 자아정체감 형성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F=.259.04$, $p<.01$). 자아정체감 형성에 대한 세 변인의 전체 설명력은 61%(결정계수 $R^2=.61$)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변인은 자아존중감($\beta=.59$)이고, 그 다음이 가정의 심리적 환경($\beta=.15$), 학교환경($\beta=.1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학교환경이 좋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은 보다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할 수 있다.

둘째, 다음은 가정의 심리적 환경, 학교환경, 자아존중감이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 각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줄의 결정계수 R^2 난의 수치들은 독립변인들의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을 말해주는 것이고, 나머지 수치들은 표준화 회귀계수(β 계수)를 나타낸다(<표Ⅳ-3>참조).

〈표Ⅳ-3〉 가정의 심리적 환경, 학교환경, 자아존중감이 자아정체감과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에 미치는 영향력

	자 아 정 체 감	안 정 성	목 표 지 향 성	자 기 존 재 의 독 특 성 지 각	자 기 수 용 지 각	자 기 주 장	대 인 역 할
가정의 심리적 환경	.14**	.28**	.38**	.15**	.46**	.34**	.35**
학교환경	.13**	.19**	.19**	-.09	.13**	-.09	.16**
자아존중감	.59**	.24**	.44**	.44**	.48**	.54**	.30**
결정계수 (R ²)	.61	.19	.31	.14	.46	.31	.26

* p<.05 ** p<.01

〈표Ⅳ-3〉을 보면, 자아존중감은 자아정체감의 모든 하위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해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가정의 심리적 환경 또한 자아정체감의 모든 하위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환경은 자아존중감 변인과 함께 안정성, 목표지향성, 자기수용, 대인역할 지각 변인을 설명해 주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 중 안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은 가정의 심리적 환경($\beta=.28$)이고, 그 다음이 자아존중감($\beta=.24$), 학교환경($\beta=.19$) 순이었다. 가정의 심리적 환경, 자아존중감 및 학교환경은 안정성을 약 19% 정도를 설명하였다. 이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학교환경이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목표지향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은 자아존중감($\beta=.44$)이고, 그 다음이 가정의 심리적 환경($\beta=.38$), 학교환경($\beta=.19$)의 순이었다. 가정의 심리적 환경, 자아존중감, 학교환경은 목표지향성을 약 31% 정도를 설명하였다.

자기존재의 독특성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은 자아존중감($\beta=.44$)과 가정의 심리적 환경($\beta=.15$)이었다. 자아존중감과 가정의 심리적 환경은 자기존재의 독특성을 약 14% 정도 설명하였다.

또한 자기수용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은 자아존중감($\beta=.48$)이고, 그 다음이 가정의 심리적 환경($\beta=.46$), 학교환경($\beta=.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가정의 심리적 환경 및 학교환경은 자기수용을 약 46% 정도 설명하였다.

자기주장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은 자아존중감($\beta=.54$)이고, 그 다음이 가정의 심리적 환경($\beta=.34$)이었다. 자아존중감과 가정의 심리적 환경은 자기주장을 약 31% 정도를 설명하였다.

대인역할 지각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은 가정의 심리적 환경($\beta=$

.35)이고, 그 다음이 자아존중감($\beta = .30$), 학교환경($\beta = .16$)순이었다. 가정의 심리적 환경, 학교환경과 자아존중감은 대인역할 지각을 약 26% 정도 설명하였다.

따라서 자아정체감의 각 하위변인에 미치는 세 독립변인의 영향력은 '안정성' 과 '대인역할지각' 변인을 제외하고는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정의 심리적 환경, 마지막으로 학교환경순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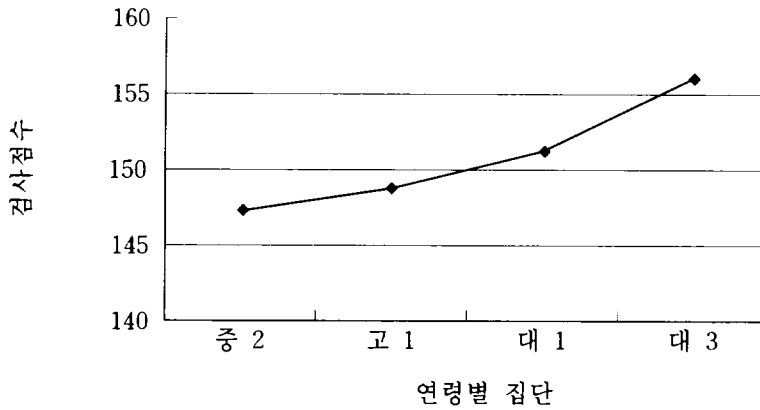
2) 연구문제 2의 검증

〈표Ⅳ-4〉 청소년의 연령단계별 자아정체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중학교 2년	210명	147.46	17.88
고등학교 2년	219명	147.74	15.41
대학교 1년	109명	152.80	14.56
대학교 3년	110명	156.30	14.33
계	648명	149.95	16.28

위의 〈표Ⅳ-4〉을 보면 연령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자아정체감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상승경향을 보였다. 특히 대학교 3학년 단계에서 자아정체감은 뚜렷하게 증가되어 중, 고등학교와는 큰 폭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변화에 따라 자아정체감이 증가된다는 여러 선행연구들(이차선, 1999; 권순명, 1993; 김형태, 1989; Wagner, 1987; Waterman, 1985; Meilman, 1979)의 결과와 대체적으로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서봉연(1975)의 연구에서는 중학생 시기에 해당되는 11~14세 때보다 고등학교시기에 해당되는 15~17세 단계에 자아정체감은 오히려 약간 하강했다가 18~21세 단계에서는 큰 폭의 증가를 보였고(161→165), 다시 22세 이상의 연령단계에서는 큰 폭의 하락(165→162)을 보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음의 그림[Ⅳ-1]에서 보면 자아정체감은 연령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 학생들이 보이는 자아정체감 점수는 중,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고, 대학교 1학년 단계에서 제법 크게 상승하기 시작하여 대학교 3학년 단계에서는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그림 IV-1] 연령단계별 자아정체감의 점수 변화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자아정체감은 연령단계별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상승경향이 연령단계별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발달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IV-5> 청소년의 연령단계별 자아정체감 점수의 변량분석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합	F
집단간	7669.22	3	2556.41	10.05 **
집단내	163892.10	644		
전체2	171561.32	647		

** p<.01

앞의 <표IV-4>에서 밝힌 각 연령단계별 자아정체감 점수와 위의 <표IV-5>의 변량분석 결과를 보면, 중학생이 147.46, 고등학생 147.74, 대학교 1년생 152.80, 대학교 3년생이 156.30으로 연령단계가 높아질수록 점수는 증가하였다. 집단간 변량분석 결과는 F=10.05로, .01 유의 수준에서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으며, 어느 집단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기 위하여 평균치의 개별비교를 위한 Scheffé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는 차이가 없고, 대학교 1학년생들과 대학교 3학년생들 사이에도 차이가 없으나, 중학교와 대학교 1,3학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고, 고등학교도 대학교 3학년과 유의한 차이가 있음(p<.05)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중, 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교 시기에는 자아정체감 형성 과제에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여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때문에 중, 고등학교 시기와 대학교 3학년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세 연령집단(중, 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형태(1989)와 권순명(1993)의 연구와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다.

다음은 연령단계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들의 점수 변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령단계별로 하위변인들의 점수를 비교 분석해서 다음의 <표IV-6>에 제시하였다. 또한 이 점수들에 대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여 그 유의도 검증결과만을 하위변인별로 점수 변화와 함께 제시하여 집단간의 차의 유의도 검증치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균치의 개별비교를 위한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여 함께 제시하였다.

<표IV-6> 연령단계별 자아정체감 하위변인의 점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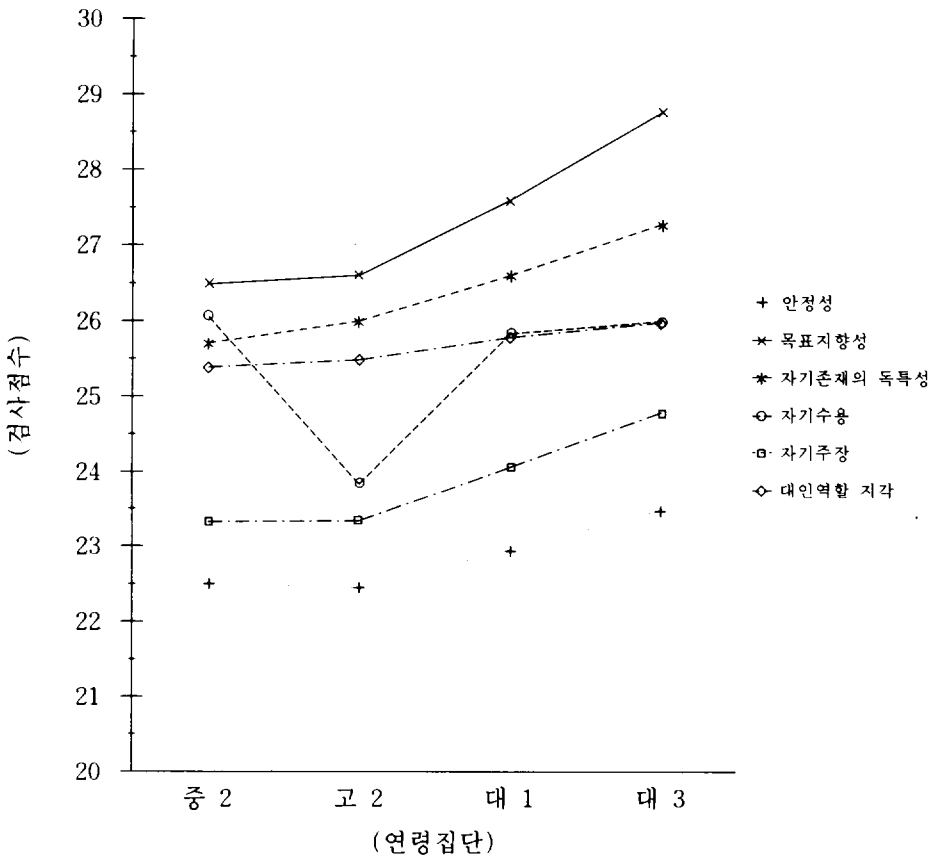
	집단	평균	표준편차	F	Scheffé검증
안정성	중2	22.50	3.71	2.90*	중2 : 대3*
	고2	22.44	3.09		
	대1	22.90	2.93		
	대3	23.47	3.09		
목표지향성	중2	26.49	6.10	5.88**	중2 : 대3*
	고2	26.60	4.83		
	대1	27.60	4.50		
	대3	28.76	4.15		
자기존재의 독특성	중2	25.71	3.27	6.55**	중2 : 대3*
	고2	26.00	3.30		
	대1	26.60	3.24		
	대3	27.29	3.04		
자기수용	중2	26.07	5.47	8.23**	중2 : 대1*
	고2	23.88	4.27		
	대1	25.84	4.56		
	대3	26.00	4.33		
자기주장	중2	23.31	4.79	3.66**	중2 : 대3*
	고2	23.34	4.46		
	대1	24.17	4.07		
	대3	24.78	3.73		
대인역할지각	중2	25.37	3.57	.82	
	고2	25.48	3.48		
	대1	25.70	3.44		
	대3	25.97	3.35		

총	점	중2	147.46	17.88	10.05**	중2 : 대1*
		고2	147.74	15.41		중2 : 대3*
		대1	152.80	14.56		고2 : 대3*
		대3	156.28	14.33		

* p<.05 ** p<.01

〈사례수:중2=210, 고2=219, 대1=109, 대3=110〉

앞의 〈표 IV-6〉에서 밝힌 연령단계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별 점수의 변화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IV-2]와 같다.



[그림 IV-2] 연령단계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별 점수 변화

자아정체감은 총점에 있어서는 앞의 〈표 IV-5〉에서 밝힌 것처럼, 연령단계의 변

화에 따라 점점 높아지는 것을($F=10.05, p<.01$) 볼 수 있었으나, 앞의 <표Ⅳ-6>과 위 [그림Ⅳ-2]에서 나타난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별 점수변화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대인역할 지각'을 제외한 모든 하위변인은 연령단계별로 자아정체감에 있어서 .01 유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였다. 연령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계속 상승하는 하위변인은 '목표지향성', '자기존재의 독특성', '자기주장'이다. 그러나 '안정성', '자기수용' 변인은 고등학교 시기에는 하강했다가 대학생이 되면서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김형태(1989)의 연구에서는 '목표지향성'과 '안정성' 변인이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목표지향성' 변인은 김형태의 연구에서는 중학생과 대학생간에 큰 폭의 유의미한 차이(약 5점)를 보였으며 연령증가에 따라 '목표지향성'이 상승하는데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약간의 차이(약 2점)를 보이며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안정성'과 '자기수용'은 고등학교 시기에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대학생으로 되면서 다시 신장한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사회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자신이나 타인에 대하여 일관적이고 동질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자기가 속한 상황이나 사회의 규범 등에 대하여 갈등과 회의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김형태의 연구(1989)와 또 다른 차이점은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장' 변인이 연령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함께 계속 상승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인역할지각'은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생들보다 점수가 더 높게 나왔으나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들 역시 청소년의 연령발달과 함께 전반적으로 상승되어 가며, 특히 대학교 3학년 시기의 자아정체감에 있어서 높은 점수는 정체감이 안정되게 확립되는 시기임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Ⅳ. 논의 및 결론

1. 논의

이 연구는 제주도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 변인에 관한 연구로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환경, 학교환경, 자아존중감을 자아정체감의 형성변인으로 설정하여 이들 각 변인들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과 자아정체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변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연령과의 관계를 살피기 위하여 연령단계별 자아정체감의 발달경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의 검증에 들어가기 전에 자아정체감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의 심리적 환경, 학교환경,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표Ⅳ-1〉참조), 자아정체감과 가장 밀접하게 높은 상관을 보인 변인은 자아존중감($r=.76$)이었고, 다음으로 학교환경($r=.64$), 가정의 심리적 환경($r=.52$)의 순으로 유의 있는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자아정체감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는 아주 낮은 상관을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며, 더 나아가 물질적인 풍요와 고학력을 갖춘 부모가 자녀양육과 자아정체감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적인 흐름에 비판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오히려 부모들과의 대화의 단절, 소외 등으로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1) 가정환경, 학교환경, 자아존중감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

각각의 독립변인들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 가정의 심리적 환경, 학교환경변인은 모두 자아정체감을 예언해 줄 수 있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자아정체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변인은 자아존중감($\beta=.59$)이었고, 그 다음이 가정의 심리적 환경($\beta=.15$), 학교환경($\beta=.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 독립변인은 자아정체감을 약 61% 정도를 설명해 주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이들 세 변인과 연합하여 자아정체감을 유의있게 예언해 주지 못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고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학교환경이 좋을수록 자아정체감 형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예언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자아정체감의 각 하위변인들에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영향력 분석(〈표Ⅳ-3〉참조)에서 자아존중감은 하위변인 중 '안정성'과 '대인역할지각'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 중 '안정성', '목표지향성', '자기존재의 독특성'은 이차선(1999)의 우리 나라의 여러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와는 대조적으로 가정의 심리적 환경에 의해 유의미하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8, .38, .15$). 이러한 연구결과는 제주도의 청소년들이 "일관되고 동질적인 나"에 대한 생각과 자신의 목표와 행동방향에 대한 인식 및 타인과 비교하여 현재의 능

력, 신체적, 심리적 특성면에서 구별되는 자아상을 갖는 것이 육지 청소년들에 비해 훨씬 가정환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제주도의 가족구조가 그만큼 응결력과 친화감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특히 자주성과 협동심, 단결력, 공동체의식, 미래지향성 등이 강조되는 제주도인들의 특성과 가정의 심리적 영향력이 이러한 결과를 지지해 주는 것을 김항원(1998)의 책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또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은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 중 '자기수용' 변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beta=.48$)은 이차선(1999)의 논문($\beta=.14$)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제주도 청소년들은 자기가 속한 집단이나 사회, 가정에 강한 동질의식을 느끼면서 열등의식 없이 자신을 잘 수용하고 있음이 김항원(1998)의 책에서 지지되고 있다. 그리고 '대인역할지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 또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변인으로 이차선(1999)의 연구($\beta=.09$)와는 크게 대조를 이루며 영향력의 순서에 있어서도 가정의 심리적 환경, 다음으로 자아존중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환경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세 독립변인 중 자아정체감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변인은 심리 성격적 특성을 가진 자아존중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Erikson(1959)의 지적처럼 자아존중감은 자아정체감 형성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변인임을 실제로 입증해 주는 결과였다. 즉 자아정체감에 보다 많은 영향을 주는 변인은 환경변인들보다 심리적이고 성격적인 성향을 지닌 자아존중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점에서 청소년의 안정된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Turner(1990)의 연구에서도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가정환경보다 크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2) 청소년의 연령단계별 자아정체감의 발달경향

자아정체감의 발달은 연령변인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Erikson에 의해 주장된 바,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발달 경향을 규명해 보았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은 연령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보다 높게 형성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권순명(1993), 김형태(1989), 서봉연(1975)의 연구결과와 거의 일치하였다. 그리고 대학교 3학년 시기에는 자아정체감 점수의 두드러진 증가를 보였는데 이러한 추세는 바로 대학교 3학년 시기에 자아정체감 형성이 보다 뚜렷하게 확립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또한 서봉연(1979)은 "한국과 서독의 청소년 비교연구"에서, 한국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시기

에 자아정체감의 하강을 보이는데 반해, 서독의 청소년들은 어떤 연령단계에서도 하강이나 침체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도 서독의 청소년의 발달경향과 유사하게 자아정체감 점수가 어느 연령단계에서도 하강이나 침체를 보이지 않았고, 또한 중, 고등학교 시기까지는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대학교로 가면서 상승의 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후속적으로 더 연구가 되어야 하겠지만, Erikson의 주장처럼 우리의 청소년들이 오늘날 문화적으로 보다 성숙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며, 국민의식이 높아진 성인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자신의 정체감에 대한 특별한 혼미나 위기감을 별로 경험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입시경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직면해서 자기자신의 정체와 진로, 역할모색 등등에 대하여 고민하거나 위기감을 경험해 볼 여유조차 가지지 못한 채 청소년 후기로 진입되고 있는 데서 기인하는 까닭이라고도 이해된다.

연령단계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별 점수의 변화에서 대도시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김형태(1989)의 연구에서는 '목표지향성' 변인이 중학생과 대학생 간에 큰 폭의 유의미한 차이(약 5점)를 보였으나,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이차선(1999)의 연구와 제주도 학생들만을 다룬 본 연구에서는 약간의 유의미한 차이(약 2점)를 보인 점이 시사점을 던져준다. 즉 대도시 청소년들에 비하여 중소도시나 제주도의 청소년들의 목표의식과 목표지향적인 태도가 다소 소극적임을 시사해 준다. 특히 제주도 경우에는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육지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삶에 대한 도전의식이나 목표의식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도전의 기회가 많이 부여되는 대도시의 청소년들보다 낮을 수 있으며, 주어진 상황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2. 결 론

본 연구는 가정환경, 학교환경,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고, 연령증가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발달경향을 밝혔다.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환경, 학교환경, 자아존중감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변인을 제외한 자아존중감, 가정의 심리적 환경, 학교환경은 모두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력을 갖는 변인으로 밝혀졌으며, 자아정체감에 대해 약 61%의 설명력을 갖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자아존중감이 자아정

체감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며, 다음으로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학교환경의 순이었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은 연령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발달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중학교부터 대학교 1학년 단계까지는 완만한 상승을 보이다가 대학교 3학년 시기에는 자아정체감 점수에 있어서 두드러진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대학교 3학년 시기에 비로소 자아정체감 형성이 확립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육적 차원에서의 제언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보다 많은 영향을 주는 변인은 가정환경이나 학교환경보다 자아존중감이 밝혀졌다. 그 동안의 연구에 따르면,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인으로 가정환경이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어 왔으며, 학교환경 또한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자아정체감에 대한 가정환경, 학교환경,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심리 성격적인 특성을 갖는 자아존중감이 세 변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의의 있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인이 자아존중감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의 건전하고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훈련기법의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것처럼, 자아존중감이 높고,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학교환경이 좋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아진다고 하는 점은 곧,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자아정체감을 바람직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배려와 연계적인 생활지도가 필요함을 뜻한다.

둘째,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발달경향에서 밝혀진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자아정체감의 형성 또는 확립이 약 12-18세에 이루어진다고 한 Erikson의 견해와는 달리, 대학교 3학년에 가서야 자아정체감이 보다 높게 형성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교 시절에 바람직한 자아정체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의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교과내용이 인지적인 측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정의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조화롭게 다루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셋째, 이러한 횡단적인 연구 결과는 상당한 유의성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장기간에 걸친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완되고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기 다른 연령단계에 있는 청소년 학생집단을 대상으로 얻은 결론을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모든 교육이 인간을 가치롭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자아정체감은 나와 타인, 개인과 사회 또는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다. 교육과의 관련성 속에서 볼 때, 자아정체감은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사회적 차원에서 주체성을 가지고 조화롭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육은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정체감을 형성하여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다 제도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순명(1993), 지각된 양육경험과 자아정체감 및 통제귀인간의 관계 분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유자(1996), 아동이 지각한 가정환경에 따른 정체감 유형과 창의성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항원(1998),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 제주:제주대학교 출판부.
- 김형태(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아청(1987), 청년과 아이덴티티, 서울:배영사.
- _____ (1988), 아이덴티티론, 서울:교육과학사.
- _____ (1990), Erikson 성격발달이론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보완, 계명행동과학 3.1, 55-75.
- _____ (1993), 아이덴티티의 세계, 서울:교육과학사.
- 서봉연(1975),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일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1979), 한국과 서독 청소년의 identity 발달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연구 2집, 한국 사회과학연구소, 114-138.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서울:학지사.
- 송설희(1993), 가족유형과 지각된 부모의 수용 - 거부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태수(1986), 성인기의 자아정체감과 개인적 특성간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유명환(1989), 가정환경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숙(1984), 대학생의 자아정체 수준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차선(1999),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변인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전병재 · 장승욱(1984), 한국청소년 연배집단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연구소, 여름호.

정성숙(1994), 아동기의 학습부진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원식(1970), 가정환경 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코리안 테스트링 센터.

_____ (1995), 학교환경론, 서울:교육출판사.

Abraham, K. G.(1983), The relation between identity status and locus of control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 257-264.

Adams, G. R., Dyk, P., & Bennion, C. D.(1987),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and identity formation, Family Perspective, 21, 249-260.

Branden, N.(1992), The power of self-esteem, 강승규(역), 나를 존중하는 삶, 서울:학지사.

(1994), The six pillars of self-esteem, New York:Bantam Books.

Bruer, R. H., & Snyder, R.(1972), Ego Identity and motivation:An empirical study of achievement and affiliation in Erikson's theory, Psychological Reports, 30, 951-955.

Dignan, S. M. H.(1965), Ego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 5, 476-477.

Douvan, E., & Adelson, J.(1969), The self and identity, In D. Rogers. Issues in adolescent psychology(166-172), New York:Appleton-Century Crofts.

Erikson, E. H.(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s, 1, 1-171.

_____ (1963),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ew York:W.W. Norton

& Co.

_____ (1968), Identity:Youth and Crisis, New York:W.W. Norton & Co.

_____ (1975), Life history and the historical moment, New York:Norton

& Co.

- _____ (1980),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W.W. Norton & Co.
- Grotevant, H. D., & Cooper, C.(1985), Patterns of interaction in family relationships and the development of identity formation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6, 415-428.
- Gurney, P. W.(1988), Self-Esteem in children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London:New York:Routledge.
- Jacobson, E.(1964), The self and the objective world, New York: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Marcia, J. E.(1966), Development validation of ego 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5, 551-558.
- _____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 Adelson, (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159-187), New York:John Wiley & Sons.
- Meilman, P. W.(1979), Cross sectional age changes in ego identity status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5, 320-321.
- Perry, T. B.(1987), The relation of adolescent self-perceptions to their social relationship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Oklahoma Graduate College.
- Richardson, R., Galambos, N. M., Schulenberg, J., & Petersen, A.(1984), Young adolescents' perception of the family environment,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4, 131-153.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 _____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Basic Books.
- Rosenfeld, R.(1972), The relationship of ego identity to similarity among self, ideal self, and probable occupational role concept among college ma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 Rutter, M.(1985), Studies of psychosocial risk:The power of longitudinal data,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 Turner, W. L.(1990), Ego Identity development in black college students:The effects of self-esteem, ethnic identity and family environ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Wagner, J. A.(1987), Formal operations and ego identity in adolescence, Adolescence, 22, 23-35.

Watson, M. F., & Protinsky, H. O.(1988), Black Adolescent identity development:Effects of perceived family structure, Family Relations, 37, 288-292.

Waterman, A. S.(1985), Identity in the context of adolescent psychology:In A. S. Waterman(ed.), Identity in adolescence:Processes and content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5-24), San Francisco, CA:Jossey-Bass.

Abstract

Influences of Home Environment,
School Environment and Self-esteem
on Adolescent's Ego-identity in Cheju

Cha-Sun Lee

This study aims to deal with the variables of ego-identity formation, which is one of the significant tasks in the adolescence. There are many factors which may affect the formation of ego-identity of adolescents, however, out of the factors above, home environment, school environment, and self-esteem were set as major influence variables, based on various results of study in advance and implicative meanings included by the definitions of ego-identity.

1. The purposes of the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1) to investigate and to determine the variables affected ego-identity of adolescents, at the same time to identify the variable which gave the most essential influence, 2) to analyze the change of ego-identity resulted from the increase in one's age.

2. The methodology of the study:

The subjects of the sample consisted of middle school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 and university students. Four scales were used to test the research tasks. 1) Home Environment Scale was composed of the questionnaires on the developmental and psychological aspect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2) School Environment Scale was made up of the questionnaires on the psychological environment of the school that inquires both human relationships between teachers, students, internal classmates and learning activities. 3) Self-Esteem Scale consisted of 4 subscales. 4) Ego-Identity Scale was formed of such categories as one's stability, goal-directedness, uniqueness of

self, self acceptance, self-assertiveness, and interpersonal role expectatio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alysis of variance were used for analyzing collected data. And Cronbach's alpha coefficient was calculated.

3. The results and the conclusion of the study:

The verified results through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results identified in the first research task is as follows: The variables which affect ego-identity were tested by using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ocio-economic status of home gave no significant influence on ego-identity statistically, whereas all of the psychological home environment, school environment, self-esteem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Out of influential factors on ego-identity, the greatest significance on ego-identity was self-esteem, the second was psychological home environment, and school environment was ranked at the third. Therefore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against ego-identity was self-esteem which is psychological or characteristic variable.

2) The ego-identity of adolescents was turned out to be increased by the rise of age.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ego-identity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and freshmen and juniors, high school students and juniors at the .05 level statistically.